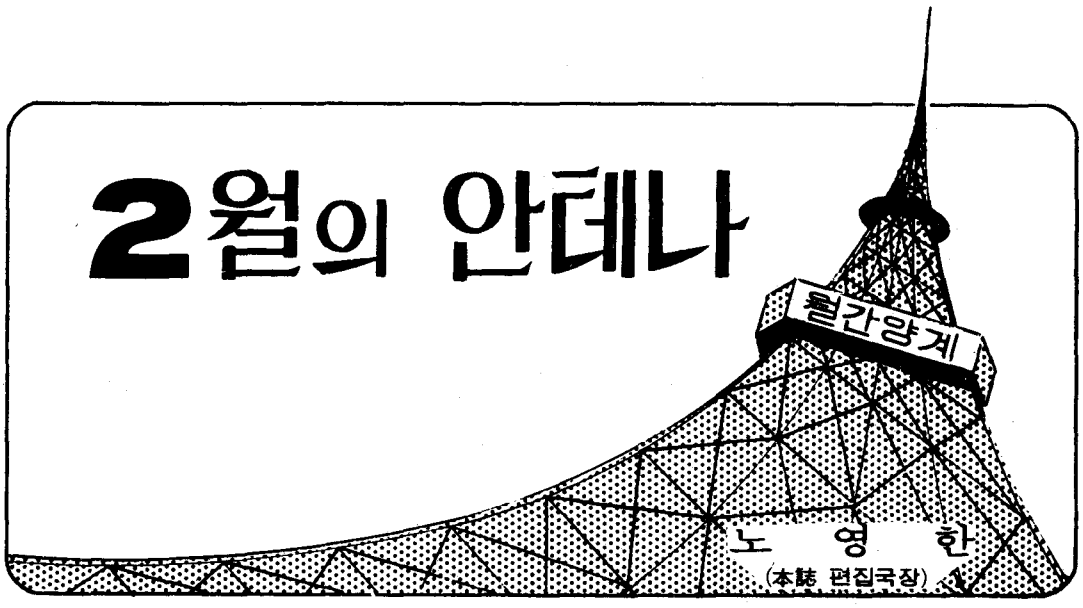
2월의 안테나



노 영 한
(本誌 편집국장)

사협, 본회와 협조하여 국군장병에게 계란 위문품 전달

한국사료협회(회장 : 정태원)는 구정을 맞이하여 국군장병에게 계란을 위문품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계란의 수집 포장 운반등은 양계협회가 담당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본회는 2월 3일까지 이를 모두 성공리에 끝마쳤다.

이번 장병위문은 구정에 국토방위에 노고가 많은 장병위문의 목적외에도 여러가지 부수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른 여러가지 식료품이 있지만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계란을 택한 것이 잘 되었으며 계속 불황에 허덕이는 양계업자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환영한다.

이번 계란 수매 과정에서 다만 한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으로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단기간 많은 물량을 모으는것 보다는 물량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집하여야 최소한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번 일로 사료협회나 양계협회는 목적이 분명하고 좋은 일을 하고저 할 때는 회원들의 적극협조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이번에 참여하여주신 사료협회의 회원사들과 양계협회 회원 농장들에 감사를 드린다.

불황을 대비한 안정기금 필요

양계산업이 안정되게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로 가격의 진폭이 매우 큰 것을 들고 있다.

가격의 진폭이 큰 원인과 대책은 그간 수차에 걸쳐 본지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생산자는 무조건 비싸게만 값을 받으면 좋고, 소비자는 무조건 싸게만 구입하면 이익이 오는 것으로 들 생각하고 있다.

물론 단한번의 거래로 끝난다면 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도 없을 줄로 생각된다. 양계산물을 생산자에게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인의 입장은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해가 또다를 수 있다. 생산자들은 생산품을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저 협회, 조합 또는 여러형태로 뭉쳐 보려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각종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은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유지야말로 바로 양계산업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우선 목적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값을 높인다면 생산이 증가되어 어쩔수 없이 값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진폭만 크게 되어 대군 업자는 버틸수 있으나 군소 양계업자는 어쩔수 없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 경우의 계란 체화 현상도 작년 비수기의 계란값 상승이나 산란계의 환우에 힘입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회에서 시안한 양계안정 방안도 따지고 보면 안정기금으로 공급조절을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를 뒷바침하여 생산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생산조절의 뒷받침 없는 가격정책은 오히려 더 큰 위험만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한 바로는 개당 1~2원 정도의 조작비나 또는 포장비의 보조로 수출을 통한 가격회복의 값도 앞으로는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다. 호주 이스라엘 등에서 실시하는 수출보상제도 등이 우리에게도 하루빨리 이루어 졌으면 한다.

좀 더 잘 먹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들 잘먹는데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잘 먹는 것을 사치 또는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잘먹는다는 참뜻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최소의 비용으로 즐겁게 섭취한다는 것일진대 이는 우리가 더욱 널리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국민에 알맞는 영양 권장량이 매년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한국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는 국민 보건과 체위의 향상 식생활과

식량의(모든식품) 수급계획및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방력과 산업부흥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이바지 하고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준대로 먹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기가 온것 같다.

위의 목적에서 분명한것 같이 우리가 닭고기나 계란을 많이 섭취하여 주기를 바라는것도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라는것 외에 국민보건과 체위향상으로 국방과 산업부흥에 이바지 하고저 하는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영양권장량 책정의 기준이 될 한국인 체위기준치를 1975년 이후의 각종문헌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한국성인의 체위기준치

성 별	신장(cm)	체중(kg)
남 자	170	60
여 자	158	52

〈표 2〉 각국별 1인 1일당 식품수급량 대비 (단위 : g)

나라명	연도	곡물	감자류	설탕류	콩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알류	어패류	우유유제품	유지류
한국	'78	530	69	31	28	285	44	32	13	61	24	12
일본	'77	323	78	72	24	361	157	78	74	93	156	33
필리핀	'75	372	97	56	15	79	201	64	9	126	32	11
중공	'74	326	282	15	25	175	24	52	10	18	9	8
인도	'74	373	29	67	39	127	64	4	1	7	93	13
오스트리아	'75	221	166	99	11	229	292	214	39	11	649	49
미국	'75	169	131	137	22	259	198	302	44	19	676	62
소련	'64~66	428	378	106	19	186	58	106	19	28	476	33
영국	'75	204	248	134	13	166	129	201	38	22	942	41
이태리	'75	457	101	84	22	427	276	179	31	28	558	60
스위스	'75	192	133	109	14	231	334	204	31	13	1,017	44
스웨덴	'75	168	222	116	7	115	222	166	35	60	980	37
노르웨이	'75	195	194	73	8	102	186	138	25	66	1,353	60
독일	'75	176	247	104	9	188	304	225	47	25	739	53
캐나다	'75	191	251	123	27	185	221	258	35	16	828	38
알젠틴	'74	270	230	110	5	209	289	269	19	13	225	46
브라질	'74	249	189	119	60	60	312	85	11	11	135	23
이집트	'74	501	43	141	26	277	204	34	4	8	40	26
남아프리카	'74	426	59	102	8	110	75	105	11	22	190	22

資料 : OECD, Food consumption statistics, FAO Production Year Book, 농수산부 식품수급표(1978년도).
※ ○ 브라질·이집트·인도는 잠정치임. ○ 중공과 남아프리카는 FAO 추계치임.

여기에 따르면 단백질의 경우 성장기는 하루 한사람이 90gr 이상을 성인은 80gr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하루 80gr의 단백질을 공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1/3이상을 양질의 동물성 식품, 콩및 콩제품에서 얻도록 권장하고 성인의 경우 매일 1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FAO의 1980년판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할때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년간 약60만톤의 계란이 필요하며 개수로는 약 120억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금년도 농수산부 계획은 약 50억개로 우리가 필요한 계란의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우리는 2배 정도의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계란을 먹어야될 형편이지 계란의 과잉섭취가 어떻고 콜레스테롤을 논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끝으로 아직도 우리의 계란 소비는 선진국의 1/3선에 머므르고 있어 우리국민들은 더 많은 계란을 먹어야 하며 우리 양계인들은 이에 필요한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영양권장량 및 계란과 닭고기의 식품으로의 가치가 다른 육류에 비하여 가장 값이 싸고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할 의무가 있다. 다행히 이러한 때 한국사료 협회가 본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기로 한것은 시기에 적합한 결정이며 우리나라 양계 및 관련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보건과 체위향상으로 국방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표 3〉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수급량 1980年度

한국인영양권장량(1人 1日分)			80년도 국민의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수급량(만톤)	80년도 식수급량 계산내역	'77년도 식품실수급량과의 대비	
기초영양식품군	식품명	성인남자등(20~49, 60kg) 기준한 영양식품량(g)			77년(만톤)	80년(만톤)
단백질식품	고기류	100	고기생선류 120	(B) 100(g)×32,857,627×365 ≒1,199,280(T)	114	120
	생선류					
	알류	50	알류 60	(B) 50(g)×32,857,627×365 ≒599,640(T)	16	60
	콩류(두부)	15(70)		(B) 23.71(g)×32,857,627×365 ≒234,366(T)	31	28
	된장	30(콩 3.71)	콩류 28			
계		195(205)	208		161	208
칼슘식품	우유 및 유제품	180	우유류 288	(C) 180(g)×43,856,103×365 ≒2,881,339(T)	51	288
	말린멸치(뼈째 먹는 생선)	10	멸치류 16	(C) 10(g)×43,856,103×365 ≒160,074(T)	5	16
계		190	304		56	304
비타민및무기질식품	녹황색채소	150	채소류 507	(D) (G) 400(g)×1/2(37,161,923+32,287,599)×365≒5,069,704(T)	(채소 228 해조 19	507
	담색채소	100				
	김치류	150	과일류 127	(D) (G) 100(g)×1/2(37,161,923+32,287,599)×365≒1,267,426(T)	57	127
	과일류	큰것 50이상 100(하루한번)				
계		500	634		304	634
당질식품	쌀·잡곡·밀가루	500	쌀·잡곡 543	(A) 500(g)×29,759,218×365 ≒5,431,017	695	543
	감자류	100	감자류 109	100(g)×29,759,218×365 ≒1,086,204	122	109
계		600	652		817	652
지방식품	종실류	20	지방류 33	(A) 30(g)×29,759,218×365 ≒325,861(T)	13	33
	버터	10				
계		30	33		13	33